

연중 제12주일

기도서 376 면(B해)  
 제1독서 : 욥 38, 1.8-11  
 제2독서 : 2고린 5, 14-17  
 복음 : 마르 4, 35-40

#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왜 그렇게 접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마르 4, 40).

□ 강론



## 고통과 신앙

배영근 신부

세상은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다. 참된 종교라면 고통 중에 특히 죽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의미를 주어야 한다. 구약에서는 인간의 고통이 죄로부터 온다고 생각했고 재산이나 건강, 생명, 대가족 등은 하느님의 축복의 표시로 여겼다. 욥이 그랬듯이 우리는 깊은 고통이나 바랄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첫 반응은 자주 하느님께 대한 격분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고통이 인간이해를 초월한 것이므로 비로소 하느님과 관계가 있다고 깨닫게 된다.

구약에서는 후세에 대해 확실히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욥에게 다시 돌려주신 축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이상 우리에게 고통의 해결을 줄 수 없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도 후세에 대한 강한 신앙 없이는 고통의 해결 방법이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부터 전 생애를 통해서 몸소 삶으로 깨닫게 하셨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똑같은 힘이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항상 당신은 고통 당하게 될 것과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부활하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실제로 고통을 당하실 때는 인간으로서 피하시려고 했고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마르 14 : 36), 십자가상에서는 하느님께 원망하며 격분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르 15 : 34) 하셨다. 그러나 끝내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것은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모범이다. 결국 고통문제 해결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임을 깨닫게 해준다.

정말 이 진리를 깊이 신앙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보다 잘 극복할 수 있으며 고통속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생활의 편리, 안락, 풍요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왕으로 군림하실 수 있는 단 한번의 경우에서 마저 가장 낮은 방법인 당나귀를 타신것은 어리석고 바보같은 행위였을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안락한 것, 편리한 것을 취하는 것이 비록 나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는 신앙에서 보다 덜 좋은 것 약간 불편한 것을 찾는 것도 하느님다운 방법이 아닐까?

(교구청)



## 버들잎을 띄우는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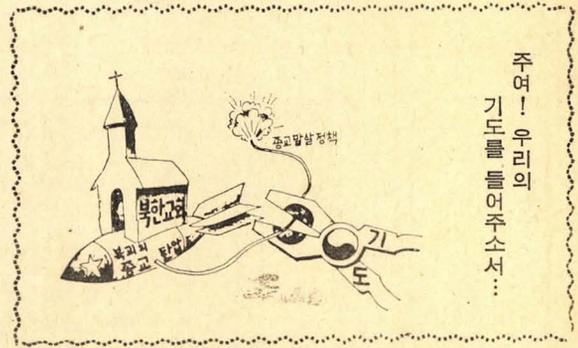
88고속도로가 개통 1년만에 보수공사로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 아닌게 아니라 88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팔딱팔딱(?) 튀어서 팔팔고속도로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매끄러운 느낌도 안정감도 없다. 앞으로 만드는 도로들은 시멘트로 포장한다니(시멘트 포장 확대 방침), 1년만에 때우고 또 때우면 어떻게 될까? 아스팔트 고속도로에서도 보수공사 때문에 짜증이 났는데, 이젠 더할테니 어찌 참아야 할꼬?

도로포장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시비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기술적인 것들은 전문가들이 냉철하게 분석할 일이고, 다만 서두르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고 싶을 뿐이다. 지난번 박정권이 만든 고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빠른 시일안에 만들어서 지금 남은 결과는 무엇인가? 도로공사 사장의 말대로 심봉사 도포자락같이서 보수비가 너무나 많이 든다면, 이는 분명히 국민경제를 해치는 죄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시멘트 고속도로의 보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서울시가 지하철 건설때문에 진 빛에 가위눌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상환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2·3·4호선을 동시에 착공한 무리한 투자와, 공사를 서두르느라고 이자율이 높고 거치기간이 짧은 조건나쁜 국내의 부채를 마구 끌어드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1조8천8백억원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인가? 상상도 안된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고 해도 서둘러서는 안된다. 서두르는데는 나름대로의 속셈이 있다. 실적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내가 해냈다'는 꼴같지도 않은 자랑을 하고 싶은 어린이가같은 몸짓에 불과한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누가 한 마디하면 질세라 맞받는 서두름(성급함), 이 여름을 넘겨 할 뿐이다.

## 숲 정 이 산책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서교실 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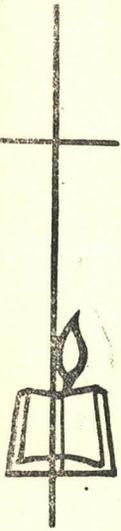
### 처음에는 싹이 돋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이삭에 알찬 낱알이 맺힌다. 마르 4:28

이 「씨의 비유」(마르 4:26-29)는 마르코 복음의 특유의 비유로써 지극히 간단하지만 내용은 아주 중요하다. 이 비유 속에는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의 깊은 신뢰가 들어 있고, 복음의 특성, 예수 전도(傳道)의 참다운 정신이 들어 있다. 하느님의 나라는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일단 씨앗이 뿌려진 이상, 씨앗은 자기 법칙에 따라, 자기 힘으로 발육하고 성장하며 처음에는 싹이 돋고,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마침내 낱알이 맺는다는 것이다.

「뿌린다」(발레)의 원어(原語)의 동사형(形)은 동작의 일회성 안에서 확실한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단 뿌려진 이상, 무엇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루 하루 자고 일어난 사이」라는 말은 「씨의 성장」에 대해서 어떠한 인간의 조력, 공헌도 없었는데도, 놀랄만한 일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고 한 것이다. 인간은 씨앗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육의 이유도 모른다는 것이다. 참으로 인간의 무력(無力)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영(靈) 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비유는 자연계의 법칙이 하느님의 나라에도 행해진다 는 것이다. 씨를 뿌리고, 이삭을 패게 하는 것,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일을 하느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인간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역시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하다」(고후 3:7). 모든 것이 하느님의 창조 역사(役事)의 소산이다. 우리가 그분께 신뢰할 때만이 모든 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



### 청소년 특집 ③

## \*\*\* 빼 앗 긴 꿈 \*\*\*

—청소년의 입장에서—

「나날이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라는 제하의 기사가 자주 신문에 보도되고 있고 거기에 실려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보면 같은 입장에서조차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애써 그들의 입장에서 보려는 마음에 장애가 되곤 한다.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꿈과 이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느끼곤 한다. 꿈이 있는 친구들은 배사에 의욕적이고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꿈이 없어 보이는 친구들은 대개 의욕이 없고 항상 짜증을 잘 내며 생활이 단정하지도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은 꿈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꿈이 없는 사람도 있는가?

꿈이 없기 보다는 빼앗긴 것은 아닐까? 요즈음 우리들은 하루 24시간 중 나 자신을 살펴볼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다. 물론 그럴 마음의 여유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항상 경쟁의식 속에서 쫓기는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경쟁에서 조금만 뒤져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따듯한 격려나 위로 대신 오히려 꾸중과 질책을 사랑이라

는 이름으로 받게 된다. 그래서 친구를 대할 때도 다정한 벗으로서가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보이는 때가 많고 따라서 마음을 탁 터놓을 수도 없다.

흔히들 청소년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하며 낭만이 깃든 시절이라고 말한다. 또 우리들 청소년들은 나라와 겨레의 꽃이요, 미래의 주인공이라고도 말한다. 나는 항상 이 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게을러져서는 나에게 체책질을 가한다. 이것은 비단 나만 그러는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내가 아는 한 좋지 않은 여진 속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은 멋과 낭만을 추구하고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염려하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일부의 탈선 청소년들을 보고 마치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그런 것처럼 판단할 때는 사실 서운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끝으로 이 지면을 통해 감히 어른들께 청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우리들 책임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들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들을 너무 위협하게만 보지 말고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만의 꿈과 낭만을 가꿀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전주 성심여고 2학년 오지선

<p><b>대리점 및 사원모집</b></p> <p>*대 상 : 부녀사원 *인 원 : ○○명 *보 장 : 월 30만원 이상 *대리점 : 도내일원 (담보 없음) *문의처 : ④7764</p> <p><b>참존 전복총판</b></p> <p>대표: 김 명 중 박빌리버 · 최요양</p>	<p><b>고려페인트 대리점</b></p> <p>*각종 페인트 도산매 *공사청부 *집수리 전문 *각종 보수공사 일절 문의 상담</p> <p><b>대한 도장공사</b></p> <p>김 의 화(요셉) ☎ ④4874, ④6522 전주 서노송동(중앙성당 옆)</p>
--	--

**♣ 회소식!**  
급·만성 간염, 간경화 등 각종 난치병에 치료효과

**무 료 특 강**

베네딕도 수도원  
강 사: 최 종 명(노렌조) 수사

\*매월 단 하루의 기회(개인 편담 가능)

일 시: 1985년 6월 24일(월) 오후 3시  
장 소: 전주 구, 성모병원 3층(건강상담) 309호  
문의전화: 72-3925번

# 교 구 소 식

- ☆ **축! 견진** : 주현동 천주교회-30일 오전 10시, 주례-박정일 주교님
- 교구 혼인법원 상담** : 25일(화)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 여성 제19차 꾸르실로 동창회** : 6월 25일 오후 2시  
장소-가톨릭센터, 준비물-미사도구·겉잡이·성경
  - 주일학교 하계교리 교재 판매** : 1권당-200원  
각 본당의 요청에 따라 교재신청 마감을 25일로 연기했습니다. 마감일 이후 신청은 받지 않겠습니다(신청은 교구청 홍보국으로 00041~3)
  - 교리교사 하계 수련회** : 일시-7월 1일~3일(2박3일), 장소-상관 천주교회  
참가비(교재비 포함)-5개도시(전주, 이리, 군산, 남원, 정주-1만원)  
그외지역-7천원, 준비물-미사도구·수저·젓가락·목주·쌀2되·모포  
접수마감-25일, 접수처-교구청 홍보국 ※ 자세한 것은 공문 85-6 참조 바람
  - 전주 M·E 제9차 다리과절 워크샵** : 6월 23일 오전 9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준비물-필기도구·간식·미사도구
  - 시민강좌**
    - ①전주 : 일시-6월 25일 오후 8시, 장소-전주 중앙성당  
제목-통일로 가는길, 강사-???
    - ②이리 : 일시-7월 1일 오후 8시, 장소-이리 주현동성당  
제목-민중해방과 민족통일, 강사-문익환 목사
  - 특강-레크레이션의 이론과 실제** : 일시-6월 29일(토) 오후 2시~6시  
6월 30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가톨릭센터 강당  
접수-6월 25일까지 교육국 및 안내실(00041~3)  
강사-서울 '영'레크레이션 연구실실장 오경운, 강사-왕현모, 수강료-5천원
  - 특강-교육학** : 일시 7월 6일~7월 7일, 장소-가톨릭센터
  - 중·고 지도자 연수교육** : 6월 29일(접수 13시)~30일, 가톨릭센터에서  
내용-①레크레이션 이론과 실제, ②캡츠 이론 및 응급조치법  
대상-중·고지도자, 회비-8천원
  - 교구 전체 전 모임** : 오늘 2시30분, 가톨릭센터 교육관, 서울 본부에서도 옵니다
- ※ **축! 영명** : 성 요한 세자 탄생 대축일(24일)  
-김봉희·왕수해·한기호·김요한 신부님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대축일(29일)**-이대권·서석기·김병엽·김영신·박창신·엄기봉·문규현·이순성·김희남·박인호·정양현·방의성 신부님 축하합니다

## ✿ 잠깐!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는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  
이제 여름방학이 오고 본당에서는 어린이 하계 주일학교가 시작된다. 금년에는 교구에서 어린이를 위한 방학교리교재를 발간했다. 세속교육에 대한 그 열성의 반이라도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갖는 부모라면...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권씩 사주자. "아버가 설익은 포도를 먹으면 아이들의 이가 시름해진다"(에제 18:2)는 말씀이 무섭지 않은가!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미영의(투리포니아)

• 혼수(회갑)웃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복 | 도매상  
• 고급 침구류 | 도매상  
• 각종 솜 일체 | 도매상  
• 커튼지

**서울주단**  
☎ 0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개업 5주년 기념-  
**꽃을 싸게 팝니다**  
장미 1단 10송이 300원  
카네이션 20송이 300원  
안개 1단 300원  
각종 생화 농장 출하가격으로  
로 열가판매

**진선미꽃집**  
전주백화점 옆 02628

밝은 눈, 맑은 눈  
**고려안경원**  
전주 중앙성당 정문,  
성마로로 서원 옆  
☎ 72-5770  
김홍균(베드로)

**코오롱 MANSTAR**  **맨스타**  
전주특약점  
☆코오롱 단체복 주문안내  
직장 남·여 근무복, 단체복, 체육복, 기타 특수복  
(회사, 금융기관, 정부기관, 백화점, 공장, 병원, 사회단체, 학교)  
주: 김 아드리아노  
전주시 중앙동 3가 26-1 ☎ 8415  
(전북은행 중부지점 옆)

제 I 지구 각 본당소식 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사무실 2-7032 보좌신부 김 의 철  
수녀원 " 사도회장 이 흥 채

1. 예비자 입교(입학)식: 다음주 공식미사 중에 합니다 예비자 인도에 노력합니다
  2. 모내기 봉사활동 33명 참가: 농촌에 사랑의 손길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 전자올겐 기금 신입합시다: 이종선-20구좌, 이강심-2구좌, 유혜란씨-2구좌, 이복자·김대홍·고말셀로·한기수·김영희씨-각 1구좌씩, 계-95,000원 누계-220,000원
  4. 청년회 율례회: 30일 저녁미사 후 본당내의 남·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5. 중·등부 예비자교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6. 유아 영세식: 29일 오후 3시 대부모와 함께 오후 2시까지 나오세요
  7.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교무금 분납원칙을 준수하여 본당운영에 협조합니다
  8. 공소 순회미사: 29일 저녁 8시, 신원리공소
  9. 금주의 전례담당: 제4주, 차주는 1조가 담당입니다
  10. 봉사자 모임: 26일 저녁 8시
  11. 특별헌금: 중노2가 김순님(세시리아)씨 10만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429,000원 교무금: 212,300원  
지난주 신축금: 140,000원

(서화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무실 " 사도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1. 예비자교리: 예비자 인도에 온힘을 다합니다
  2. 남성 레지오 마리애: 금요일 오후 8시30분에 있을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주일 봉헌금: 한주일동안 하느님의 은혜 감사하며 성의를 다하여 봉헌합니다
  4. 교황주일: 다음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5. 성심회 임원개편: 구임원 회장-김혜자, 부회장-이복남, 서기-서춘옥, 회계-김정운  
신임원: 회장-손옥연, 부회장-서춘옥, 서기-김창운, 회계-조귀례  
구임원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신임원들 앞으로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6. 금주전례: 해설-김배근·고정수  
독서-①박경환 ②박종순, 기도-천사의 모후  
차주전례: 해설-신영창·오정희  
독서-①김낙균 ②김광수, 기도-성심회
- 지난주 봉헌금: 일반-336,560원 주일학교-4,250원  
중·고-11,720원 계-352,530원  
교무금: 121,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기 곤  
수녀원 2-8347 사도회장 김 병 오

1. 성마리아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2. 전동 울드레아: 24일, 저녁미사 후 꾸르실로 수료자 전원 참석 바랍니다
  3. 200주년 기념사업에 적극 참여합니다  
백종홍-3만원, 하성운-2만원, 김영자-1만원, 강경숙-5천원, 감사합니다  
아울러 젊은이 성가대에서 마련한 화장실 기금 마련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4. 다음주 공식미사 봉헌담당: 유기동 부부 팀
  5.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이영희, 독서-①최병태 ②이주영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김병오 ②정진훈  
저녁미사: 해설-최원일, 독서-①최종만 ②이훈
- 지난주 봉헌금: 854,020원 교무금: 423,2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도회장 이 교 성  
수녀원 2-4804

1. 가톨릭 신앙 입문(예비자 교리)  
입교식-다음주일 11시30분
  2. 교육관 신축 목주기도: 11,871만, 누계-62,832만
  3. 주부 성서대학: 이스라엘의 예언 사상
  4. 은혜의 밤(철야기도회): 29일 밤 9시부터
  5. 자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유아세례: 다음주 10시
  6. 주일 미사시간: 새벽 5시30분, 9시, 10시30분 저녁 7시30분
  7. 전례봉사: 해설-김금희, 독서-①이정선 ②김순주-기도-①서길자 ②서성희
- 지난주 봉헌금: 447,780원 교무금: 146,000원  
건축헌금: 470,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 영 교  
사무실 2-5238 사도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

1. 사도회: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2. 반회합: 27일-저녁미사 없음, 저녁 8시 완산동 신부님-은희영, 화산동 김수녀님-이인원 진1반 이수녀님(이요안나)
  3. 29일 성베드로 바오로 축일: 베드로, 바오로 본명 가지신분들 합동으로 미사 바칩니다 사무실에 신청 바람, 저녁 8시미사
  4. 교황주일 특별헌금 다음주일
  5. 주일학교: 주일 오후 2시, 어린이미사-3시 부모님들 관심을 가지고 보내주세요
  6. 지난 5월 25일 영세하신분들: 30일 공식미사 후 강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7. 30일 9시 학생미사 없음  
부안성당과 친선체육대회 관계로 부안에서 미사있음
  8. 금주 성당청소: 월-다위의 탑pr, 토-셋별pr  
차주 성당청소: 월-황금궁전pr, 토-이땅에 빛pr
  9. 금주전례: 해설-김인식, 독서-①강기연 ②김순자  
차주전례: 해설-정운주, 독서-①천 건 ②장영자
- 지난주 봉헌금: 197,807원 교무금: 503,250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 영 신  
사무실 사도회장 이 정 우

1. 치과진료: 공식미사 후
  2. 감사: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기념타울 240장 기증하신 송실형제에게 감사드립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사제친목회때 수고하신 교형 자매님들
  4. 예비자교리: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12,450원 교무금: 34,000원